# 생명나눔 자비 등불, '생명 살리는 빛'으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⑤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현장

**5월 17일, 서울 우정국로서 캠페인**
**장기기증 등록 · 자살 예방 활동**
**시민들과 생명 존중 공감대 나눠**
**일면 스님 현장서 시민들과 소통**
**연등 · 단주 만들기 체험 인기**
**"한 사람 생명 살리는 일, 큰 공덕"**




생명나눔실천본부는 5월 17일 서울 종로 우정국로 앞에서 열린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서 생명나눔 홍보 ·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시민들과 만났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통해 생명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 우정국로가 형형색색의 연등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즐기려는 국내외 인파로 가득 찼다.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이 펼쳐진 거리 곳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불자들이 전통문화 체험에 참여하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다.

수많은 부스 중에서도 유독 따뜻한 활기와 진지한 온기가 동시에 감도는 곳이 있었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홍보·체험 부스다.

전통문화마당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살 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연등·단주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거리 한복판을 '생명 공유'의 가치를 서약하고 자비를 나누는 도량으로 바꿔냈다.

이날 현장 중심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이끌며 수십 년간 생명나눔 운동의 최전선을 지켜온 이사장 일면 스님이 있었다. 매년 전통문화마당 현장을 지켜온 일면 스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부스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시민들과 만나며 캠페인을 진두지휘했다.

특유의 인자한 미소로 대중 앞에 나선 일면 스님은 부스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합장 인사를 건넸다. 이어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선입견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며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생명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다.

교계 안팎을 막론하고 생명나눔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사장 스님이 직접 발로 뛰며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자 바삐 걸음을 옮기던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보시 중 최고의 보시는 자신의 육신을 나눠 고통받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뒤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숨결이 돼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회향은 없을 것입니다. 연등이 세상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결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일면 스님의 진심 어린 권선에 감동한 불자들과 시민들은 즉석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서 양식을 채워 내려갔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았다가 스님의 설명을 듣고 등록을 마친 한 시민은 "평소 마음은 있었지만 막연히 미루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스님 설명을 듣고 나니 지금이 바로 실천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년 전통문화마당에서 큰 호응을 얻는 비결은 '장기기증'이라는 다소 무겁고 엄숙할 수 있는 주제를 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친근하게 풀어낸다는 점에 있다. 이날 부스 한편에 마련된 체험존에서는 연등과 단주 만들기가 쉼 없이 진행됐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색 한지를 정성스레 붙여가며 자신만의 연등을 완성하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알록달록한 단주 알을 실에 꿰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특히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체험을 마친 한 외국인 관광객은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까지 배울 수 있어 이번 연등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 이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으려는 자비의 손길도 이어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과 의과대 학생 자원활동가 모임 '따숨'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자살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며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했다. 부스 곳곳에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등의 따뜻한 메시지와 홍보물이 배치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우울과 고립, 자살 문제에 대해 불교계가 앞장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봉사자들은 시민들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시민들은 자살 예방 홍보판에 스티커를 붙이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특히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친구들과 함께 부스를 찾은 대학생들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마음-이음 메시지'를 읽으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대학생 김영원 씨는 "요즘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오늘 캠페인을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년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서 거두는 성과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본부는 수년 전부터 해마다 전통문화마당이 열릴 때마다 큰 규모로 부스를 기획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며 시민들과 소통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쌓여 이제는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서 '생명나눔 부스'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실제 한 시민은 "지난해 생명나눔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했다"며 "가족과 상의한 끝에 올해는 장기기증 등록을 하러 왔다"고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일면 스님은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서 펼쳐지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은 서로의 생명을 비추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라면서 "생명나눔의 의미가 이날 부스를 찾은 시민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자살예방 OX퀴즈를 시민들과 함께하며 소통했다.



부스 한편에 마련된 체험존에서는 연등과 단주 만들기가 쉼 없이 진행됐다.




시민들은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해 서로에게 전하는 마음—이음 메시지를 가득 채워갔다.

**봉축사 이사장 일면 스님**

## 자비광명 속에 드러나는 본래면목

삼라만상이 새로이 숨 쉬는 좋은 계절,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법계에 충만한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심전(心田)에 두루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무명(無明)에 덮인 중생의 마음 가운데 본래 구족한 불성(佛性)이 스스로 드러나는 대각원성(大覺圓成)의 인연이라 할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에도 일념(一念)의 무명이 스스로를 가두고, 분별과 집착으로 끝없는 윤회의 길을 자초하니, 참으로 가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 자성을 비추면, 번뇌의 물결 또한 곧 보리의 대해(大海)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은 외형의 장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심(自心)의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일체 중생을 향한 회향(廻向)의 서원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 한 자락, 생명을 아끼는 작은 실천 하나가 곧 무량공덕의 종자(種子)가 되어 법계에 두루 퍼져나갈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밖으로 형상을 집착하지 말고 안으로 자성을 반조(返照)하여, 일상 가운데서도 늘 깨어있는 한 생각으로 자비와 지혜를 원만히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바세계가 다툼과 번뇌의 터전이 아니라 연꽃 피어나는 청정도량으로 전환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여러분의 삶마다 길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암사·생명나눔회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제32회 생명나눔 천도재

일시 2026년 6월 6일 (현충일/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경기도 남양주시)
행사 무형문화유산 이수자 초청 특별 천도재(극락무 시연)

접수안내
• 전화접수 : 02-734-8050
• 접수날짜 : 2026년 6월 4일까지
• 현장접수 : 불암사 종무소 앞 회원 접수처 (행사 당일 08:30 ~ 12:00)

• 천도재 동참/접수비
영가 한 분당 2만 원
• 입금계좌 : 농협 053-17-001346 (입금 후 전화바랍니다)

교통편 서울 지하철 태릉입구역 (6호선, 7호선) 7번 출구 → 155번, 82B번 버스 승차 → 202번 종점 하차 → 불암사 셔틀차량 탑승 (운행시간 : 8시 30분~15시/ 30분마다 운행) → 불암사 도착 (불암사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